

# '가장 늙은 도시' 전남...청년층 비중 전국 최하위

171만 4000명 중 청년층 39만6000명 23.1%...전국 평균 밀돌아  
노년층 44만9000명...전체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광주, 청년층 비중 30.9% 전국 평균 상회...노년층은 16.6% 그쳐

지난해 전남지역의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노년층 비중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농·어업을 중심으로 1차 산업 외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매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남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 이상이 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된 데다,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졌다든 점에서 인구 고령화 및 지역소멸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총 인구는 171만 4000명으로, 이 중 청년층 인구가 39만 6000명(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

았고, 전국 평균(29.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 이어 경북(24.5%), 경남(25.1%), 강원(25.8%), 전북(25.9%), 제주(27.0%) 순으로 청년층 인구 비중이 낮았다. 반면, 전남 노년층 인구는 44만 9000명(26.2%)로 전국에서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19.1%)을 크게 상회했다. 이어 경북(24.6%), 전북(24.0%), 강원(23.9%), 부산(22.8%) 순이었다. 전국에서 전체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곳은 전남이 유일했다.

게다가 전남지역 청년 가운데 지난해 타 시도로 이동한 유출 인구는 3만 6000명에 달했다. 지역 내 청년 10명 중 1명이 매년 타 시도로 떠나고 있는 셈이다. 청년 인구의 유출과 은퇴 후 귀농·귀향 등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 전남에 반해 광주는 전국에서 청년 비중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젊은 도시'에 속했다.

광주시 총 인구 수는 지난해 기준 125만명이며, 청년층 인구는 43만 9000명(30.9%)에 달했다.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33.8%), 대전(32.6%), 세종(31.9%)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광주시 노년층 인구는 23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16.6%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19.1%)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또 광주는 청년들의 타 시도 이동 비중도 7.3%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전국적인 추세인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청년 인구 감소 및 노인 인구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로, 매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을 겨울 방한 모자 어때요 23일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팹에 위치한 지프(JEEP) 매장에서 직원이 군밤모자 모양의 '이어머프캡'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는 등 한파에 대비해 다양한 방한 모자 제품들을 추천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 HS효성첨단소재,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 코리아 2년 연속 편입

ESG 경영 강화 높게 평가

HS효성첨단소재가 모기업인 HS효성의 '가치, 또 가치'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하 DJSI) Korea'에 2년 연속 편입됐다.

HS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ESG 관리, 인권 강화 노력 등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DJSI는 세계 최대의 금융 정보 제공 기관인 'S & P Global'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다.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내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중에서도 업종별로 ESG경영이 우수한 상위 30% 이내의 기업들만 선정된다.

이번 DJSI Korea 지수 2년 연속 편입은 HS효성첨단소재가 ESG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HS효성첨단소재가 2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은 결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skim@kwangju.co.kr

## 호남권 4분기 경기 '흐림'...제조·건설투자·수출·부동산 모두 감소

백화점 매출 늘고 대형소매점 줄어  
건설 착공면적 줄고 분양도 부진

올 4분기 호남지역 경기가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생산이 소폭 줄었고, 수요 측면에서도 건설투자와 수출 등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2024년 4분기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 4분기 중 호남권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생산은 광주와 전남의 중심 산업인 자동차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줄었는데, 자동차는 지난 10-11월 가이자동차 광주공장의 협력업체 파업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석유화학은 수성성 저하로 인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일부 업체 공장들의 생산라인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생

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 예술·스포츠·여가업·운수업 등은 증가했지만, 부동산업은 주택매매와 전월세 거래량 등이 감소했다. 이 밖에도 숙박·음식점·도소매업 등은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수요 측면에서는 올 4분기 민간 소비는 소폭 증가했지만, 건설투자, 수출 등은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에서는 가구,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재화 소비가 늘었다. 업태별로는 지역민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된 가운데, 백화점 매출은 소폭 증가했고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민간과 공공 양면에서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착공면적이 줄어 들고 분양시장 부진도 지속됐다. 10월 중 민간부문 12분기 누적 건설수주액은 지난 10월 기준 전

분기 대비 8.9% 줄었고, 공공부문에서는 1.2% 감소했다.

호남지역 수출 역시 전분기에 견줘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조선 부문에서 업체 계약 일정 등에 따라 선박 인도가 늘면서 대폭 증가했지만,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반적인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2.01 (+37.86)
▲ 코스닥	679.24 (+10.93)
▼ 금리(국고채 3년)	2.616 (-0.013)
▲ 환율(USD)	1452.75 (+1.35) (오후 4시 58분 기준)

##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1kWh당 +5원 유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3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전기요금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누적적자로 인해 재무정상화를 목표로 내건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5원으로 적용, 유지해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재정 악화를 고려해 지난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9.7%가량 인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산업용, 농업용 인상을 거듭해왔지만,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해왔다. 최근 에너지 원자재 가격 등이 안정되면서 이를

반영하는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1kWh 당 -5원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정 상태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전기요금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 상황에서 최대치인 연료비조정단가 등의 인상이 불가해해진 만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기본요금 또는 전력량 요금 등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 등 어지러운 정국과 경기침체 양상 지속 등으로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 다산명가 아카이브 개설...브랜드 가치 높인다

1월 8일까지 텀블벅 펀딩 진행

아카이브센터가 최근 강진군의 강소기업인 '다산명가'와 함께 '다산명가 아카이브'를 개설했다. 이는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특화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의 첫번째 사례다.

다산명가 아카이브는 기존 공식 홈페이지와 달리 다산 정약용과 인연이 있는 해남 윤씨 가문의 내림장인 장부이의 생산과정과 내력 등이 담긴 원천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구축했다. 향

후 장부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대내외로 다산명가의 정체성을 알리고, 지켜나가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카이브센터와 다산명가는 신규 아카이브 개설을 기념해 이벤트도 마련했다. 내년 1월 8일까지 텀블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며, 다산명가가 위치한 강진 주변 지역의 자연에서 생산된 전복, 고추, 쌀, 콩 등을 이용해 제조한 전복장부이를 비롯해, 신제품 전복볶음등까지 선보인다. 이번 제품들은 지역 특화상품인 용기에 장부이를 담아내 특별 한정판으로 제작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